

# ‘커지는 이자부담’...대출금리, 어디까지 오르나

### 코픽스 상승에 주담대 변동형 금리 상단 6% 넘어 전세·신용대출 금리도 6% 육박...연말 7%대 관측 다중채무자·청년층 등 취약계층 부실 위험 가중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들의 여신금리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말이면 대출금리 상단이 7%대를 넘어설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최근 다시 6%를 넘어섰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다.

은행별로 보면 19일 기준 ▲KB국민은행 4.44~5.84% ▲신한은행 4.30~5.35% ▲하나은행 4.777~6.077% ▲우리은행 5.31~6.11%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0%로 전월 대비 0.5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3년 3월(2.8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상승폭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전월(0.40%포인트)을 넘어섰다.

코픽스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에 발맞춘 은행권의 수신금리가 오르고 금융채 금리도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금융채에 연동하는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도 오르고 있다. 예대금리차를 줄이려는 금융당국 압박에 한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6%대를 향해 가는 모습이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 3.93~5.33% ▲신한 4.22~5.05% ▲하나 4.561~5.861% ▲우리 4.98~5.7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신규 코픽스 기준 4.04~5.823%로 상단이 6%대에 다가갔

다. 신용대출도 금융채 6개월 기준 4.371~5.73% 수준을 형성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출금리 상단이 연말이면 7%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이에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금융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와 취약계층, 저소득 청년층 등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체 채무자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22.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2.1%보다 0.3%포인트 올라가며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31.9%로 차주 수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다중채무 대출 잔액의 26.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4월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다중채무 차주 수와 채무액 규모는 각각 451만명, 598.8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017년 말 416.6만명, 490.6조원 대비 각각 8.3%(34.4만명), 22.1%(108.8조원) 증가한 규모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이 32.9%(39.2조원) 급증한 158.1조원에 달했다. 40~50대 중년층은 16.2%(51.2조원) 증가한 368.2조원을 나타냈다. 60대 이상 노년층은 32.8%(18.0조원) 증가한 72.6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다중채무자 1인당 금융권 채무액은 1.1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12.8%(1500만원) 불어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이 8800만원에서 29.4% 급증한 1.14억원을 기록했다. 중년층은 10.4% 증가한 1.43억원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은 10.3% 감소한 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2030대 차주는 4월말 기준 81만635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의 전세자금대출 차주인 133만5090명의 61.1%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세자금대출 잔액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2030이 빌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걸려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94조1757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72%(39조4376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4개월 만에 2.3%(2조1915억 원) 불어나 96조3672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에서 실수요로 꼽히는 전세대출은 줄지 않고 있다”며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뉴스1

## 가파른 금리상승에 대출자 허리 휨다

###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1년 새 약 2% 상승 변동형 주담대 월 상환액, 2년 새 27% 늘어 기준금리 3% 달하면 이자부담 더 커질 듯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지표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금리 상승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대출자를 짓누르는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쓰이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년 사이 2% 가까이 올랐다. 최근 6개월 사이에만 1% 넘게 올라 인상 폭도 가파르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다시 6%대로 올라섰다.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0%로 전월 대비 0.52%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된다. 2월 공시된 1월 신규 코픽스는 1.64%, 지난해 8월 공시된 신규 코픽스(2021년 7월 기준)는 0.95%였다. 이달 말 금리가 새로 산정된다면 2월보다 금리가 1.26%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년 전(2020년 8월17일) 주택담보대출(30년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방식, 신규취급액 코픽스 6개월 연동금리)로 4억 5600만원을 빌렸을 경우 최초 대출 후 6개월간 적용되는 금리는 연 2.60%,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월 상환액은 약 182만5000원이다.



대출 후 1년이 흐른 지난해 8월에는 금리가 연 2.63%로, 월 상환액은 183만 2000원으로 소폭 오른다.

2년이 지난 이달에는 월 상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주담대 금리가 연 4.61%로 오르며 월 상환액은 231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2년 만에 약 27%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지난 달에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2.25%까지 높였다. 금리 상승 기조가 계속되면서 상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조건에서 기준금리가 3.00%로 지금보다 0.75%포인트 오르며 코픽스도 같은 폭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때 내년 2월에는 금리가 5.36%로 치솟는다. 월 상환액은 250만5000원으로 증가한다. 대출 초기보다 37% 늘어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월 소득의 절반을 원리금 상환에 쓰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이다.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자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변동금리가 적용돼 금리 상승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의 78.1%, 신규 취급 가계대출의 81.6%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으로는 78.1%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금리 상승기에 채무 불이행 등 부실 가능성이 큰 다중채무자의 비중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곳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올해 1분기 말 22.4%로 지난해 말 22.1%에서 0.3%포인트 늘었다.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31.9%로 차주 수 기준보다 비중이 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변동금리, 이자상환 대출 구조에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 차주의 연쇄적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금리가 1.5%포인트 인상되면 기존 가계 차주의 이자 부담은 1년 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뉴스1

<b>호남신문</b> 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b>김 평 호</b> 편집국장 직무대리 <b>서 선 옥</b>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b>충효로 63 가동 2호</b>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b>공릉로 62가길 16-1</b>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